

유 학 보 고 서

| | |
|-----------|-----------------------|
| 파 견 대 학 | 닝보대학교 |
| 파 견 기 간 | 2016.09.06~2017.07.06 |
| 학 과 및 학 년 | 중국경제통상학과 4학년 |
| 성 명 | 강민정 |
| 제 출 일 | 2017.07.12 |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9월12일/2월27일

학기종료: 1월23일/7월3일

방학: 여름7월4일~9월9일

겨울1월23일~2월22일

학교주소: 宁波市江北区风华路818号

닝보는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입니다. 사계절 내내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비교적 습합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길고 햇볕이 아주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온도에 비해 춥습니다. 음식은 특별한 점은 없고 탕원, 떡, 생선요리가 닝보의 특색음식이라고 합니다. 닝보는 치안이 좋고 교통환경도 비교적 발전되어있어 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닝보대학교 유학생은 국제교류원에서 어학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은 A~E 다섯 개 반으로 나뉩니다. 학교 등록하는 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분반되고 과목은 종합, 듣고 말하기, 독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목의 난이도는 교수님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말할 순 없지만, A반은 성조와 발음부터 배우는 기초반, B, C 반은 HSK3~4급, D, E 반은 HSK5~6급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반은 영어로 수업한다고 합니다.

교환학생은 본과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영어로 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수업 과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학점짜리고 어학수업 시간표와 겹치기 때문에 학점 인정을 받긴 힘듭니다.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닝보대학교 기숙사비는 한 달 1300元 정도로 기억합니다. 석 달 치 월세가 보증금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때 전기세를 조금 내고 떨어지면 충전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마 층마다 공용 주방과 세탁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방음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생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기숙사와 별 차이가 없어서 학교 밖에서 방을 구해서 사는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기숙사 사진이 없으므로 제가 외주했던 방 사진을 첨부합니다. (한 달 1350元)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닝보는 물가가 비교적 저렴해서 한 달 30~40만원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20元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기마다 사야 하는 교재는 150元정도로 살 수 있고, 핸드폰비는 10개월 동안 200元가까이 충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건물에는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어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터넷 비용은 한 달 50元정도인 것 같습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닝보대학교는 유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학수업 반도 적고 절반 정도의 수업을 연구생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학하기에 다른 대도시의 학교에 비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닝보는 적당히 발전되어있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닝보대학교 국제교류팀 사무실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6. 유학생활을 마친 소감

지난 닝보에서의 1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며 다양한 면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더 발전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학 기간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